홀트소식

AUTUMN 2024 VOL.214

홀트소식

www.holt.or.kr

가을 이야기

지난여름, 홀트아동복지회의 대학생 해외봉사단원들이 몽골 홀트드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봉사활동 마지막 날 체육대회를 재밌게 이끌어준 윤택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와 몽골 어린이들이 이번 가을호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관련기사 4~7쪽)

Contents

아동·청소년복지

04 도움을 받던 아이, 이제 도움을 주는 어른이 되다
08 나는 꿈꾸는 꿈동이 'MVP 주인공'
10 다원이의 단어, '간호사'

한부모가족복지

12 나와 엄마,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담다
14 내일의 CEO를 꿈꾸는 그녀들의 빛나는 도전
16 "다름을 이해하는 우리가(家) 가족입니다"
18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너의 첫 생일을 축하해!

장애인복지

20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김동연 그림 작가
23 모두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변화, 발달장애인 '친화마을'&'친화상점'

지역사회복지

26 버려지는 것들의 놀라운 변신! 환경보호 업사이클링
29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령기 아동 마을탐험 프로젝트 '아마존 탐험대'

국제개발협력

32 '행복한 아동, 행복한 부모,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캠페인

34 실명위기의 자립준비청년 우석이

나눔스토리

36 "홀트아동복지회 홀씨 1기, 생생하고 알찬 활동 기대해요"
38 SK하이닉스 임직원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북커버 만들기
40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멋진 '키다리 아저씨'
42 극한의 무한도전!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장정 완주 후원
44 '영웅시대 나눔의 방'의 특별한 팬덤기부

46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사 정용근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 (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린다백 (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스티브 모리슨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유희정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 사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 (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산하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2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홀트학교	031)915-2913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미추홀	032)548-160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 해외사업장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02)331-7040

후원자님, 지구와 자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주세요.

'종이 소식지' 대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수신'으로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자원을 아끼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식지 수신 전환방법 : 후원자 상담센터(02-331-7073~7076)로 연락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214호·계간 **발행일** | 2024년 10월 25일 **발행인** | 김정오 **편집인** | 신미숙
발행처 | 나눔마케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홈페이지 | www.holt.or.kr
후원문의 | 02-331-7073~6
후원계좌 |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좋은 사연·좋은 제언 | pr@holt.or.kr **디자인** | 알투디투

도움을 받던 아이, 이제 도움을 주는 어른이 되다

자립준비청년들의 5박 6일 좌충우돌 몽골 해외봉사활동 '드림하이'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은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꿈꿉니다. 지난여름, 그동안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자라온 자립준비청년 10명이 이제는 도움을 베풀고자 몽골 칭길테 지역의 홀트드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에는 '윤택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가 동행하여 봉사단원들의 다양한 활동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도움을 받던 아이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 성장한 우리 청년들의 해외봉사활동 '드림하이'의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우리의 힘으로!

10개의 전공, 10개의 각기 다른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팀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몽골 홀트드림센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단원들은 자신의 특기와 전공을 활용해 봉사활동 기획부터 교재·교구 제작, 봉사활동 진행, 활동홍보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첫 만남, 미술활동을 통해 한 걸음 다가가기

몽골 홀트드림센터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미술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채색도구와 꾸미기 용품을 활용해 한글 이름표와 티셔츠 꾸미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저마다 나만의 예쁜 작품을 만드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유아반 미술활동

▲ 초등반 한글활동

▲ 체육대회에서 몽골 아동과 게임 중인 윤택 홍보대사

한글과 친해지기

오전 활동은 아동 연령에 따라 한글활동과 수학활동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초등 아이들과 진행한 한글활동은 '한글 자음 그림 그리기', '한글 비즈 팔찌 만들기'입니다.
처음 보는 문자도 창의적인 그림으로 탄생하는 시간!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과 한글비즈를 활용하여 예쁜 액세서리를 만들며 한글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학이 모험이 되는 순간

초등 아이들이 재미있게 한글활동을 하는 동안 중학생들은 수학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는 단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직접 제작한 교재·교구인 'math 마블' 보드게임과 '트레저 헌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수학과 놀이가 합쳐지니 사고력도 길러지고 수학에 대한 열의도 높아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몽골 아이들, K-보드게임을 접하다!

초등 아이들의 오후 활동은 보드게임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같이 게임하는 것만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게임규칙만 알면 서로 하나가 되는 시간! 몽골 아이들도 처음 접해보는 한국 보드게임의 재미에 푹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몽골 아이들과 함께한 창의적인 과학 모험

중학생들의 오후 활동은 '비밀금고 만들기', '글라이더 만들기'인 과학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교구가 어려웠을 법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자신만의 금고와 글라이더가 탄생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훨훨 나는 글라이더처럼 아이들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더욱 돈독해진 체육대회

윤택 홍보대사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체육대회로 3일 간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단체 이어달리기' 같은 단체게임부터 '한국 전통놀이 3종', '풍선 터뜨리기', '2인 3각', '단체 줄넘기', '페이스페인팅' 등 5개의 부스까지 알찬 게임으로 서로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운 몽골 아이들이 깜짝 선물로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드림하이 단원들은 아이들의 진심어린 편지에 그간의 힘듦은 잊은 채 몽골에 스며들었습니다.

몽골 국립고아원에서 희망과 꿈을 실어주다

이번 드림하이 활동이 더욱 의미 있었던 이유는 국립고아원 방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단원들은 어쩌면 지내온 환경이 비슷할 수도 있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단원들이 심어준 희망으로 더욱 더 빛나는 아동으로 자라길 응원합니다!

▲ 몽골 국립고아원 방문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와 같은 상태예요. 이전 장이 아무리 찢기고 더럽혀져도, 다음 장을 넘겨 알록달록 예쁜 나만의 상태로 꾸미면 다음 장, 그다음 장도 예쁜 나날만 가득할 거예요." — 희망 메시지 내용 중

윤택 홍보대사와 드림하이 봉사단원들의 참여 소감

Q. 몽골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나눠주세요.

A. 드림하이 봉사활동은 감사와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홍보대사로서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 사랑하는 제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몽골 아이들의 순수하고 예쁜 눈망울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과 언어 소통은 어려웠지만 활동에 참여하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신나는 표정으로 이미 우리는 서로 잘 소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야 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슬로건이 모든 아이에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 **윤택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A. 모든 활동을 마친 후, 정말 뿌듯하고 보람찼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도움을 준 사람들의 미소를 보며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끼리도 많이 친해지고 단합되어 좋았습니다. 때로는 많이 부족했지만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서 고마웠습니다!

– **봉사팀 드림이(신민주)**

A. 봉사활동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계와의 연결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만큼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회가 또 생긴다면 한 번 더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다시는 잊지 못할 행복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이 크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를 바랍니다.

– **봉사팀 드림이(박정윤)**

Q.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인가요?

A.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체육대회로, 아이들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이들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면서 제일 밝고 행복하게 웃었던 것 같고 보는 사람에게까지 그 기쁨이 전달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날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드림하이 단원 모두에게 전해준 깜짝편지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간단한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긴 문장은 아니지만 직접 한국어로 적어주었다는 사실에 감동 받았습니다.

– **봉사팀 드림이(정민)**

Q. 해외봉사활동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모든 선택에는 득과 실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을 앞두고 중요한 시험 기간과 일정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 없이 봉사활동을 선택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단순히 해외여행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선택을 절대 할 수 없었겠지만, 저에게 봉사활동은 또 다른 배움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오자던 처음의 계획과 달리 저는 제 삶의 의지를 가득 불어넣고 왔습니다. 이전에는 불분명한 목적으로 무작정 공부만 했다면 이제는 특별한 의지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의 의미는, 어쩌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과 해외봉사 기간이 겹쳤어. 어떻게 할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봉사활동을 다녀오라 말하겠습니다.

– **홍보팀 드림이(김민교)**

몽골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의 참여 소감

Q. 미술활동 참여 소감

A. 한국인 봉사단원이 정해준 저의 한글 이름은 '마음'입니다. 제 한글 이름이 적힌 이름표에 그림을 그리면서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꾸미기를 할 때 한국인 선생님이 제 몽골 이름의 한국어 발음을 알려주셔서 제 이름을 티셔츠에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활동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 **참여아동 바야스갈랑**

Q. 한글활동 참여 소감

A. 오늘 활동 중 한글 팔찌 만드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팔찌를 만들어보았고, 한국인들도 처음 만나봐서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 **참여아동 바주르트**

Q. 과학활동 소감

A. 오늘 과학활동 중에 '비밀 금고 만들기'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비밀 금고를 만들다가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친구들에게 묻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 **참여아동 바에스특**

Q. 체육대회 참여 소감

A. 2년 전 체육대회가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참여하게 되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평소에 잘 몰랐던 아이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참여아동 멕짜야**

▲ 윤택 홍보대사와 드림이들

▲ 체육대회에서 딱지치기에 참여한 몽골 아동들

4개월의 여정을 지나 드림하이 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드림하이를 향한 따뜻한 후원의 손길과 드림하이 단원들의 열정과 사랑이 합쳐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백솔

나는 꿈꾸는 꿈동이 ‘MVP 주인공’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 교육비 지원사업 ‘꿈과희망’ 꿈 캠프 현장

하루 일정으로 진행했던 2023 꿈동이 여름 행사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올해는 1박 2일의 넉넉한 일정으로 충남 부여에서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총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이름하여 ‘MVP’ 활동입니다.
4년 만에 1박 2일로 진행된 캠프를 누구보다 뜨겁게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꿈동이들의 꿈 캠프 현장 속으로 떠나보시죠.

▲ Play 활동 아쿠아가든

친해지는 시간, Play 활동

꿈과희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기관의 사례 관리자들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꿈 캠프를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서로가 친해져야 이 시간을 더 즐길 수 있는 법! 첫 시간으로 플레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관별로 리조트 내 워터파크 혹은 백제문화단지에서 진행하는 활동으로, 참여 기관 친구들과의 친목도모에 집중하기 위해 기관별로 한 팀을 이뤄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포토미션부터 힌트를 보고 문장을 완성하는 카드미션까지, 처음의 어색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즐거운 웃음만 남았습니다.

꿈을 찾는 시간, Vision 활동

꿈 캠프의 하이라이트, 비전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비전 활동은 홀트아동복지회 명예 멘토인 강도현 MC의 센스있는 진행과 함께 1부 진로특강, 2부 경품추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루한 특강은 가라! 김가희 강사님의 유쾌한 강의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관심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 경품추첨은 단연 꿈동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서입니다. 탑리더스(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모임으로 꿈과희망 지원사업 후원) 위원님들이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꿈동이 모두가 만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전 활동이 끝난 후 100주년기념교회(꿈과희망 지원사업 후원자)에서 준비해주신 야식까지 지식과 재미와 배부름을 모두 잡은 첫째 날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Vision 활동 진로특강

▲ 격려사 중인 신미숙 회장님

▲ Membership 활동

환경을 지키는 시간, Membership 활동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멤버십 활동은 환경교육과 업사이클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깨닫고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낡거나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꿈동이들! 배운 내용을 일상에 적용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 Play 활동 중 포토미션을 수행 중인 학생들

▲ Play 활동 중 카드미션을 수행 중인 학생들

홀트아동복지회는 2009년부터 저소득가정 아동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과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홀트아동복지회가 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백솔

다원이의 단어, ‘간호사’

자립준비청년들의 삶과 추억이 담긴 에세이집 《나의 단어》, 세 번째 이야기

《나의 단어》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 ‘위드유 커뮤니티’ 활동 결과물로 제작된 에세이집입니다. 5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세방이의순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위드유 커뮤니티를 통해 자기만의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경험, 꿈과 다짐이 담긴 글들을 작성했습니다. 그 글들 중 감동을 주는 에세이를 하나씩 선정해 싣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위로와 안식을 얻길 바랍니다. – 편집자주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나는 간호사라고 생각한다. 내가 간호사이기에 더 와닿는다. 환자가 가장 아플 때 환자 옆에서 환자를 파악하고, 아픔을 위로해주며 일차적인 고통에 도움을 주는 사람. 나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간호사가 되어 행복하다.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만남이 있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꽤 오래 계셨다. 초등학교 땐 수업을 마치고 남들처럼 집에 가는 대신,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 옆에서 도란도란 떠들다가 옆자리 언니와 친해져 병원 편의점을 자주 가던 아이였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아지셨을 때, 내 곁에서 “할아버지는 금방 나으셔서 다원이랑 집에 가실 수 있을 거야”라며 위로해주던 간호사 언니가 아직까지 기억에 선명하다. 그때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이 나에게 크게 다가온 것 같다. 간호사 언니는 나의 유일한 보호자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 곁에서 건강하게 있어줄 거라고 나를 안심시켜주었다. 그날부로 간호사는 나에게 절망 앞에서 싸울 힘을 준 사람이 되었다. 긴 세월 동안 할아버지가 빛을 잃어가기까지, 내 곁에서 등을 토닥여주던 그 손길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중학생이 되어 장래 희망을 제출해야 했을 때는 막연하게 학교 선생님을 적어냈다. 그때까지 가장 많이 만나는 존재가 선생님이어서 그렇게 적은 것 같다. 중학생 때는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때 내 주위 어른들은 나에게 공부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힘든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지켜야 했기에 나에게는 공부가 수단이었다. 나를 지켜내기 위한 힘, 딱 그 정도. 그리고 보육원에서는 외로움과 끝없는 우울을 견뎌내느라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다. 나의 빛이었던 할아버지가 내 옆에 안 계시고, 생판 모르는 아이들에 둘러싸여 적응하고 버텨내야만 했던 시절. 그때는 잠시 ‘간호사’라는 직업이 나에게 준 따뜻한 감정들을 잊고 살았다.

고등학생이 되어 진로를 정할 때, 다시 간호사가 떠올랐다. 앞날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서였을까. 휘몰아치는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나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취업률’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해준 직업이 간호사였다. 멋지고 당당한 어른이 되길 원했던 나에게 간호사는 그저 세상에 ‘1인분을 할 수 있는 어른 이다원’이 되는 수단이었고, 내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였다. 문득 ‘초등학생 때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땐 왜 그런 장래 희망을 꿈꿨지?’라는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라 벅찬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어릴 적 기억을 생각해보는 데 힘을 뺏기지 않으려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썩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대학생이 되어 간호학과에서 공부와 실습에 치이다 보니 어릴 적 간호사라는 직업이 주었던 꿈과 희망은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고등학교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해 앞자리를 차지했던 내가 대학 간호학과에선 저 뒤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도 한참 부족하고 뒤처진다고 느낄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 친구들과 공부하다가 아무리 해도 오를 수 없는 벽에 부딪쳤다고, 이것이 나의 한계라고 느끼며 운 적이 있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지?’ 나에게 끊임없이 되물었다. 안정적인 직장이야 간호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많고,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왜 굳이 내가 간호사를 선택했을까? 의학용어를 외우다가 지쳐 잠이 들었던 어느 날 밤, 어린 시절의 순간이 꿈에 나왔다. 할아버지 병원 생활의 시작과 끝을 간호사와 함께하며 포근한 위로를 받았던 순간. 그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펑펑 울었다. 내가 간호사에게 받았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현실에 지쳐서 잊고 살았구나…. 그날 이후로 ‘간호사 이다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히 찾아냈고 마음에 새겼다.

이날 다시 찾은 간호사라는 직업 선택의 이유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 간호학과 학생으로 실습 1,000시간과 방대한 공부량을 이길 수 있게 해주었다. 이후 국가고시를 치르고, 병원 면접을 보고, 현재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제 간호사로서의 첫 시작인 만큼, 내 어린 시절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간호사의 모습을 잊지 않고, 나도 어느 환자의 시작과 마지막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간호사로 임할 것이다.

글 자립준비청년 이다원

나와 엄마,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담다

한부모가정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애(愛)너지 캠프'를 다녀와서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폭염도 날려버릴 만큼 엄마와 아이들의 대화와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한부모가정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애(愛)너지 캠프'인데요.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진솔하게 대화해보는 심리정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과 호수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한껏 담은 '가평우리마을'에서 진행된 1박 2일 캠프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입소식 후 단체사진 촬영

부모-자녀 관계회복 프로그램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심리상담사 김가희 강사님의 강의와 놀이로 꾸며진 첫 번째 프로그램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라는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신체 활동과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보는 감정소통 활동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고,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가족애가 더 단단해졌다"라는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신체 활동

심리정서-감정코칭 프로그램 나와 엄마 '우리들의 마음이야기' 그림책 만들기

두 번째로 진행된 심리정서-감정코칭 프로그램은 김중석 그림책작가님이 함께해주었습니다. 나와 엄마 '우리들의 마음이야기'라는 주제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에서 느낀 서로의 마음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는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림책을 만드는 동안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진솔한 마음속 얘기를 서로 나누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어머니는 "그림책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 좋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 나와 엄마 '우리들의 마음이야기'

▲ 그림책 만들기 활동 모습

▲ 완성된 그림책들

▲ 김중석 그림책작가님과 함께한 그림책 만들기 활동

▲ 감정소통, 롤 플레잉게임 활동

함께여서 의미 있는 '가족애(愛)너지 캠프'

캠프 마지막 날에는 모든 가정이 손꼽아 기다린 여가활동으로 신나는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 가족이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뜨거운 열기도 식히고 다른 가정들과도 돈독해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놀이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동안 가족끼리 워터파크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게 되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가족애(愛)너지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해주신 한부모가정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사진의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하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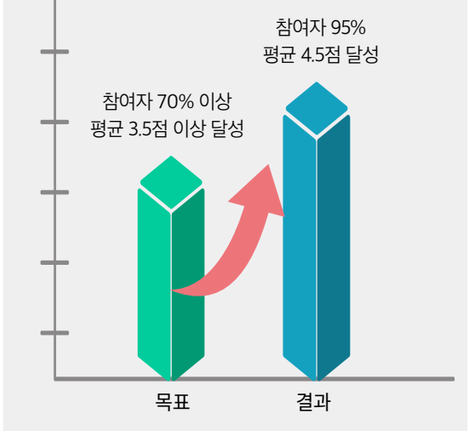
내일의 CEO를 꿈꾸는 그녀들의 빛나는 도전

H!–Change 취·창업교육 '내일의 CEO 성공하는 쇼핑몰 운영' 강의 현장과 생생 후기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H!–Change'는 현대홈쇼핑의 후원으로 베이킹·수공예·가죽공예 분야의 취·창업을 희망하는 한부모에게 교육훈련, 수익창출, 작업 공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초 개강한 이후 알찬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한부모 교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는 '내일의 CEO 성공하는 쇼핑몰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취·창업교육 Part1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열정 가득했던 강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베테랑 강사가 전하는 실전 노하우

H!–Change 취·창업교육 Part1 '내일의 CEO 성공하는 쇼핑몰 운영'은 '스마트스토어 입점과 AI를 활용한 마케팅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창업과 판매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큰 관심사로 떠오른 '스마트스토어 입점과 상품 등록'부터 마케팅, 페이지 제작, 셀러의 노하우까지 10년 이상의 베테랑 현직 전문 강사의 고급 정보와 실전 노하우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에서 한부모 엄마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하나라도 놓칠세라 필기를 해가며 집중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창업 경험자, 미래를 꿈꾸는 새내기 사장, 현직 스토어 운영자 등 여러 경력을 가진 한부모가 함께 자리하여 각자의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성과

포부와 감사가 담긴 엄마들의 목소리

강의를 들은 한부모들은 퀄리티 높은 전문 강의에 만족하며 앞으로의 포부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강의 2시간 동안 취·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꼭 점검해야 할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알려주신 수업이었어요.
스마트스토어 계정을 이용한 판매 연습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과정까지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1:1 코칭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의미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스마트스토어 교육을 받게 되어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느낄 만큼 흡입력 있는 강의였습니다."

"영어로 된 단어도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강의 내용이 다른 마케팅 강의보다 알차서 좋았어요. 교육 내용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H!–Change 취·창업교육은 새로운 내용으로 Part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전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자립의 첫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자립에 도전하는 예비 사장님들 모두가 내일의 CEO가 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동참해주세요.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다름을 이해하는 우리가(家) 가족입니다”

202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우리가(家) 가족’ 수상작 소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리기 위해 제6회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우리가(家) 가족’이 열렸습니다.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 동안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주제로 많은 작품이 접수되었는데요. 직원과 전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13명(팀)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의지를 전해준 뜻깊은 시상식과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상, 특별한 시상식

202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그림 공모전에는 이전과 다른 특별한 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여성가족부 장관상,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상, 회장상, 장려상 외에 ‘우수가족상’과 ‘우수단체상’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상들은 개인이나 팀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모임들의 동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올해는 모든 가족의 참여로 공모전의 참뜻을 전한 가족과 학급 전체가 참여하여 단합을 보여준 단체에 수여되었습니다.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참석하여 함께 추억을 쌓았고, 우수단체상을 받은 학급은 상장과 부상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주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상식에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가(家) 가족’의 모든 수상작 보기

온 마음을 다해 전하는 진심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참여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수상소감 또한 자필로 꾹꾹 눌러 쓰며 진심을 전해주었습니다.

“‘한부모여도 사랑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의미로 이 작품을 그렸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 편견이나 불필요한 인식이 아닌 같은 마음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자 김서율***

“제 작품의 제목은 공모전과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우리가(佳) 가족’입니다. ‘아름다울 가(佳)’를 써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시력이 나빠도 안경을 쓰면 잘 보이듯 편견이란 색안경을 벗고 마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본다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각자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 작품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세상 모든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용기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사장상 수상자 김소을***

“제가 그린 ‘아빠 행복해요 감사해요’는 아빠가 집의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을 지키고 감싸주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이지만 든든한 아빠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인식이 개선되고 다 같이 편견 없는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장상 수상자 김도윤***

많은 분들의 참여로 202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그림 공모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家) 가족’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너의 첫 생일을 축하해!

한부모가정 아동 돌잔치 지원사업 ‘My Day With You’ 후기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분 좋은 날 ‘생일’은 어떤 기념일보다 더 특별한 날일 텐데요. 특히, 태어나서 맞이하는 첫 생일은 누구에게나 남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첫 생일을 맞이한 아기에게도, 함께 축하해주는 사람에게도 각별한 추억으로 남기 때문이지요. 홀트아동복지회는 호반그룹의 후원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의 돌잔치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첫 생일파티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첫 번째 ‘Happy Birthday’

‘My Day With You’는 다양한 이유로 돌잔치를 하지 못한 두 돌 이전의 한부모가정 아기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호반그룹은 올해 ‘미래 세대를 위한 동행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한부모가정, 영유아, 청소년, 청년 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 대여에서부터 식대, 사진촬영 및 앨범 지원, 순금 돌반지와 돌복, 프리미엄 구스베딩 이불 및 아기 옷 세트 등에 이르기까지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돌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가정별로 지인과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친인척과 지인들도 초대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성대한 축하파티가 되었습니다.

웃음과 박수 속에 진행된 돌잡이 이벤트

아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직접 고르는 돌잡이는 아기의 장래 꿈을 그려보고 축복해주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아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판사봉, 엽전, 마이크, 공 등의 물건 중에서 하나를 잡을 때마다 참석자들의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돌잡이와 함께 돌반지를 끼워주는 시간도 가지며 앞으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길 축복해주었습니다. 돌잔치에 함께한 모든 참석자에게도 경품 이벤트와 답례품을 준비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웃음과 박수,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돌잔치 현장이 되었습니다.

▲ 돌잔치 진행

감사의 마음을 전한 엄마들의 후기

한부모들은 돌잔치의 소중한 추억을 마련해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감동적인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이번 돌잔치가 저와 아이 모두에게 뜻깊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돌잔치가 없었다면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어서 외출을 잘 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잔치는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돌잡이에 액자, 돌반지, 이불, 옷 선물까지…. 훗날 아이가 자라서 이 사진을 본다면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지인들, 선생님들 모두가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한부모가정의 양육과 자립을 도우며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김동연 그림 작가

'제4회 스타벅스 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자 김동연 작가 · 어머니 박희라 씨와의 만남

▲ 대상 수상작인 자신의 작품 앞에 선 김동연 작가

▲ 김동연 작가의 '차별 없는 세상, 친구와 함께하는 연주회'

기린, 코끼리, 원숭이… 여러 동물 친구들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숲에서 연주회를 펼칩니다. 도화지를 꽉 채운 선명한 색채와 과감한 붓터치로 표현해낸 '차별 없는 세상, 친구와 함께하는 연주회' 이야기. 바로 청년 장애인 작가를 대상으로 개최된 '제4회 스타벅스 그림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은 김동연 작가(27세)의 그림 세상입니다.

현재 소울베이커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며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림 작가로 활동 중인 김동연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친구와 함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작품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김동연 작가와 어머니 박희라 씨를 만나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와 그림 활동을 통한 김동연 작가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Q. 언제부터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지난해 9월부터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상상미술'이라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처음 그림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그림 공모전에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사실 동연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오전에는 소울베이커리에서 포장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운동이나 음악 등 여러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그림 그리기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상상미술 수업을 신청하게 됐어요.

Q. 짧은 경력에 대상까지 받았다니 실력이 대단한데요, 어린 시절 남다른 재능을 보인 적은 있었나요?

동연이가 어렸을 때는 혼자 세모, 네모 등 도형이나 신호등, 화살표, 주차표시 같은 표지판들을 곧잘 그렸어요. 그때는 장난삼아 그리는 거라고만 생각했지요. 오랫동안 발달장애인 대상 강의를 진행해온 김미라 강사님(상상미술 프로그램 담당)을 만나면서 동연이의 그림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잠재력과 끼를 밖으로 끌어내주시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동연이만 특별히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수업에 참여하는 다른 친구들도 충분히 개성 있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 디지털 드로잉 수업 중인 김동연 작가

▲ 김동연 작가와 어머니 박희라 씨(왼쪽)

▲ 상상미술 수업에 참여한 김동연 작가(앞쪽)의 모습

Q. 가장 즐겨 그리는 주제나 소재는 무엇인가요? 그림의 영감은 어떻게 얻나요?

동연이에게 주제를 주지 않고 좋아하는 거 그려보라고 하면 새를 가장 많이 그려요. 그래서 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 가족은 동연이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동물과 식물, 자연도 더 자주 접하게 되었지요. 동연이가 지금은 편안히 있지만,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자폐 증상이 심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람, 음식, 장소를 많이 가렸거든요. 그것을 깨주려고 낯선 곳에서 자고 먹으면서 지내야 하는 캠핑이나 여행을 자주 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연이가 언어 표현은 잘 못해도 몸으로 하는 운동은 잘 따라하더라고요. 스케이트, 볼링, 수영, 스키 등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사회질서, 사람과의 어울림, 의사소통 등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상상미술 수업을 통해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좋은 기회와 교육들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Q. 그림에 흥미를 보인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현재 참여 중인 미술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동연이가 승부욕이 있어서 수영이나 스케이트처럼 경쟁과 속도감 있는 활동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꼼짝 않고 앉아서 2~3시간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뜻밖에도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죠. 동연이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 새삼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상상미술과 디지털 드로잉 두 가지를 배우는데, 캠핑을 갔다가도 다음날 미술 수업이 있으니 집에 가야 한다고 조를 정도로 수업시간을 엄청 기다려요. 작년 연말부터는 몇몇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토요일에 또 다른 미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니 서로 동기부여가 되어 그림 실력도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Q.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상상미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해요.

한 반에 6명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먼저 강사님이 그날 주제나 재료를 발달장애인들 개개인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때까지 일대일로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채색화를 한다면 색을 칠하기 전에 채도를 나눠서 다양한 색을 보여주시고 반응을 확인하면서 계속 이해시켜주시죠. 그 덕분에 다들 좋은 작품을 표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작가의 경우 선생님의 지도로 밑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선택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과감해졌고 그래서 더 선명하고 강렬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상언 선생님)

Q. 최근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발달장애 작가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그림작가로 꾸준히 활동할 계획이 있나요?

동연이에게 그런 여건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작가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일도 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술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어 많이 부족하고 작가로 활동하려면 얼마나 더 실력을 쌓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도

▲ 동물 그림 그리기에 열중한 모습

아직 없는 상태라 지금 천천히 알아보는 중이에요. 동연이가 잘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은 물밑에서 쉼 없이 물장구를 쳐줄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어요.

Q. 어머니께서 김동연 작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동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이 바라는 것은 하나예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도 하고 취미활동과 여가도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그림 그리는 것도,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삶 속에서 동연이가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행복을 발견해가는 김동연 작가는 오늘도 캔버스 위에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속 동물들처럼 그의 앞날에도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4년 개관 이래 고양시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 인식개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 홍보팀 정진숙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팀 안상언

모두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변화, 발달장애인 '친화마을' & '친화상점'

홀트강동복지관 '친화상점 활동단' 이야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과 고민에서 시작된 '발달장애인 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홀트강동복지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발달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목표 아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화상점 활동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 발달장애인 친화상점

‘천천히 또박또박 건네는 친절한 설명’, ‘따뜻한 손짓과 환한 미소’로 발달장애인이 편하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친화상점입니다. 친화상점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 편리하게 상점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장님과 시설장님들이 발달장애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친화상점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친화상점’의 참뜻에 공감한 상점 사장님들이 복지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음 단계는 사장님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각 상점의 특성에 맞춰 발달장애인을 응대하는 방법과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게에 놓일 ‘친화상점’ 현판을 전달받으면 정식으로 발달장애인 친화상점으로 인증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장님들의 공감과 노력이 모여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이 퍼져갑니다. 발달장애인과 상점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변화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 친화상점 개발

한 걸음씩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친화상점 활동단

친화상점 활동단에서는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하나 주세요”라며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발달장애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은 가게 사장님들과 직접 소통하며 상점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점점 더 자신감을 쌓아갑니다.

이 활동의 가장 큰 재미는 바로 스탬프 투어입니다! 여러 특색 있는 상점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각 상점에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고 이용하는지 익히고, 가게 사장님들과 소통합니다.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모으는 과정은 마치 작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스탬프를 다 모아 지도를 완성하면 멋진 선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재미와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스탬프를 모으면서 지역사회를 더 깊이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물론, 가게 사장님들과 지역사회에도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입니다.

▲ 친화상점 사장님과 함께 '인증샷' 찍기

◀ 주문한 커피 전달받기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사회

친화상점 활동단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가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따뜻한 변화’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다양한 친화상점에 방문하여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기, 키오스크 사용하기를 체험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 능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으며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갑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화상점들 역시 특별한 의미를 더해갑니다. 가게 사장님들은 발달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따뜻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변화’가 홀트강동복지관의 친화상점 활동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따뜻함이 가득한 사회 통합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친화마을 활동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글 홀트강동복지관 기획자원개발팀 오솔길

참여소감 Talk! Talk!

발달장애인 참가자 :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어서 좋았고 사장님이 도와줘서 너무 편했어요”

참가자 부모 : “우리 아이가 상점에서 혼자 물건을 사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친화상점 활동단 덕분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자립심도 키우게 되었어요. 사장님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이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친화상점 사장님 : “우리 가게가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편안한 상점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친화상점으로 참여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 사고 싶은 물건 고르기

▲ 물건값 결제하기

버려지는 것들의 놀라운 변신! 환경보호 업사이클링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평생교육지원사업 '우리사이 업(up)!사이클링' 성과 돌아보기

리사이클링(recycling)이 폐기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라면,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단순 재활용의 차원을 넘어 버려지는 물건에 아이디어와 기술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을 의미합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4년 수성구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사이클링 자격증 수업 '우리사이 업(up)!사이클링'을 시행했습니다. 환경보호와 업사이클링 활동에 관심 있는 전 연령층의 지역주민들에게 10회기의 업사이클링 자격증 과정 교육 및 실습과 2회기의 특별활동을 진행했으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인식변화와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총 13회기에 걸쳐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사이 업(up)!사이클링'의 성과를 돌아봅니다.

▲ 1회기 활동 - 환경이론 교육

쓰레기의 변신, 새활용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실습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10명이 모인 복지관 강의실. 환경이론 교육을 들으며 업사이클링의 의미와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보호의 열의를 다지며 업사이클링 재료로 사용될 커피박(찌꺼기), 폐현수막, 폐식용유 등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활용을 실습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커피박이 키링으로, 폐현수막이 가방으로, 폐식용유가 비누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용도를 찾아가는 것을 보며 참여자들은 "다양한 재료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변신하는 것이 신기해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라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참여자들의 후기를 통해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우리 사이 업, 전시회 및 캠페인 실시

지역사회에 새활용 홍보와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6회기까지 제작한 업사이클링 물품 전시회와 환경퀴즈, 내가 지킬 수 있는 보호방법을 적고 실천을 다짐하는 '환경보호 나무 만들기' 등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나름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퀴즈를 풀고 보니 헷갈리는 문제가 많았어요", "업사이클링 물품이라고 해서 디자인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디자인이 멋지고 예뻐요"라는 후기처럼 90명 가까운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올바른 분리수거와 업사이클링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업사이클링 물품 전시회

▲ 지역주민과 함께 꾸민 '환경보호 나무'

우리사이
업(up)!사이클링

▲ 양말목을 활용해 제작된 가방과 냄비받침

▲ 지역주민 대상 원데이클래스

보조강사로서의 첫 활동, 지역주민 대상 양말목 원데이클래스

업사이클링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참여자가 직접 보조강사로 활동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양말목(양말을 만들 때 잘려나가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환경교육과 그것을 활용한 가방, 냄비받침 만들기를 지도했습니다.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재활용 제품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는데 예쁜 가방이 완성되어 자주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강사 활동에 나선 참여자도 "생각만큼 강의 전달이 쉽지 않아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고, 강의를 듣는 지역주민들이 즐거워하여 뿌듯했다"며 업사이클링 강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환경보호를 향한 한 걸음, 업사이클링 자격증 취득

지난 7월 16일에는 총 13회기 동안 진행된 활동을 마무리하며 모든 과정을 완주한 참여자들에게 자격증과 수료증을 전달하고 사업을 돌아보는 평가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 활동 소감을 나누며 “다양한 재료들의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어서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복지관에 감사하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업사이클링 자격증을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처럼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및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싶다는 소감도 남겨주었습니다.

▲ 폐종이를 활용한 노트 제작 실습

▲ 폐현수막 가방 제작 실습

▲ 활동을 마무리하는 평가회에서 자격증과 수료증을 전달받은 참여자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지역사회 환경 리더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올해 쌓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업사이클링 자조 모임과 지역사회 강사 파견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와 지역 발전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우리사이 업(up)!사이클링’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팀 이경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령기 아동 마을탐험 프로젝트 ‘아마존 탐험대’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동네 지킴이 사업 ‘아마존 탐험대’ 돌아보기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는 매년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탐험 프로젝트 아마존(**아**이들의 **마**음속 **존**) 탐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의 아이들 10명이 매월 1회, 총 8회기에 걸쳐 주체적인 마을 탐험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 효능감을 향상하고 마을의 환경과 마을주민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참여 아동들은 이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과 주인의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 통해 ‘오늘’의 우리 마을 알아보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과거시대로의 시간여행은 공상과학에서나 가능하지만, 과거 우리 마을의 모습을 탐색하는 작업은 현재 우리 마을을 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활동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시간의 연속성 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 탐험대는 지난 4월, 첫 활동으로 복지관이 있는 ‘본리동’의 역사와 옛 지명을 탐색하며 마을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우리 지역의 명소인 ‘달서선사관’을 견학하며 2만년 전 대구 달서구의 모습을 탐험하는 시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참여한 아이들 모두 즐겁게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과거 본리동 탐색 후 탐색 내용을 발표하는 아동들

▲ 과거 본리동 탐색-연리지 나무

▲ 과거시대 탐험-달서선사관 견학

좋은 이웃과 소통하고 동네 구석구석 탐험하기

우리 마을에 사는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 이웃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6월, 아마존 탐험대 아동들은 복지관 앞 시장에 나가 주민소통 인터뷰와 주민체험 미션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좋은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의 문제와 이슈를 찾기 위해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7월에 본리동과 성당동을 누볐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보도블록이 깨져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어 보기에 안 좋아요”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던 동네 이슈와 개선점들을 집중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우리 동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보는 동네 지킴이 체험활동을 펼쳤습니다.

알록달록 ‘우리 마을 지도 만들기’

활동의 결실인 ‘우리 마을 지도 만들기’는 지난 6회기 과정을 함께 정리하고, 그림지도를 통해 마을에 대해 재해석함으로써 애향심을 높이는 시간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림으로 마을을 표현해보는 지도 만들기는 우리 마을에 대해 이해하기, 개선점 찾기, 미래 마을 모습 상상해보기 등의 활동으로 아동들은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됩니다. 활동은 다함께 했지만 마을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다를 수 있어 다양한 우리 마을 지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말이 아닌 그림지도로 표현해봄으로써 아동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 아마존 탐험대 발대식

▲ 우리 동네 지킴이-파손된 점자블록 발견

▲ 좋은 이웃 소통-주민 인터뷰 활동

▲ 좋은 이웃 소통-주민 미션 활동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마존 탐험대 아동 10명은 매월 1회씩 다양한 활동으로 마을을 탐색하였습니다. “저는 아마존 탐험대 프로그램에 무조건 신청할 거예요.” “내년에 중학생이 되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던데 받아주시면 안 돼요?” 작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또다시 신청할 만큼 아마존 탐험대 활동은 복지관의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참여자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중심, 아이들이 행복한 동네를 위해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가족문화팀장 김의석

‘행복한 아동, 행복한 부모,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개발도상국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미래를 기대하며

▲ 탄자니아_부모교육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 아동들은 빈곤의 대물림과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아동 노동에 이용되거나 혹사당하고 가정 내에서 방임되어 범죄에 쉬이 노출되는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011년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를 시작으로 몽골, 네팔, 탄자니아에서 아동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홀트드림센터와 해외사업장 아동들의 부모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꾸준히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 및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부모교육 현황을 소개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아동보호교육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외곽, 도시 빈민이 모여 사는 마을에 자리 잡은 홀트드림센터에서는 매월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가정 내 어른들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한데요, 부모교육을 통한 아동권리 인식과 양육태도 향상을 목표로 정량적 성과 측정을 위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교육 전후로 인식개선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율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모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이 부모로부터 보다 양질의 양육을 제공받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_부모교육

▲ 몽골_부모교육

양육의 미래를 여는 길

몽골 칭길테 지역에 위치한 홀트드림센터에서는 부모 41명을 대상으로 방임예방 교육 및 양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경우 산업화의 영향으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부모의 영향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있는 부모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임을 인식하고 아동양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로써 부모들이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습득해 아동 발달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가족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단순히 올바른 아동양육 교육 제공을 넘어 부모들이 배운 것을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교육 프로그램 평가와 피드백을 반영해 더욱 발전된 부모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모교육을 통해 얻은 웬디의 행복

캄보디아에 사는 웬디 가족은 홀트드림센터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웬디는 공부가 하고 싶지만, 웬디의 부모님은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탓에 웬디가 공부보다 돈을 벌어 하루빨리 가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웬디의 부모님은 홀트드림센터에서 진행한 부모교육에 참여했고 웬디에게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웬디 부모님은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의 꿈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웬디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해방되어 ‘간호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웬디가 완주할 수 있도록 홀트드림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교육 통한 만디 엄마의 변화

몽골에 사는 만디의 유일한 가족은 엄마뿐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일하러 가면 만디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지내야 합니다. 다행히 홀트드림센터를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어 집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만디의 엄마는 부모교육에 참여하였고 만디 혼자 집에 두는 것이 아이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바쁜 중에도 만디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만디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작은 기여

지난 10년간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을 위해 아동교육, 위생교육, 부모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해오며 많은 아이와 부모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홀트아동복지회가 해외 빈곤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성장을 위해 쏟아온 관심과 사랑의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개발도상국의 아동들이 가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글 국제개발협력팀 이소민

자립준비청년 지원 캠페인

실명위기의 자립준비청년 우석이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붙잡고 일어서고자 하는
우석이에게 기댈 어른이 되어주세요

매년 보육원을 떠나 홀로서기를 강요받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생활하던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홀로 독립적인 삶을 준비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석이와 같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댈 어른'이 되어주세요.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석이는 힘든 세상을 홀로 견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육원이 집이었어요. 첫돌이 되기 전 시설에 맡겨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우석이의 기억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일상의 기억 대신, 보육원에서의 기억들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배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오른쪽 눈 망막이 손상되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했어요." 조금 아프고 불편했지만 이러다 말겠지 하며 견디다 보니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 보육원에서 퇴소한 우석이는 한 기업의 현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열심히 일해오다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쳤던 오른쪽 눈에 통증과 함께 시야가 좁아지는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구조물에 부딪쳤고 그로 인해 허리디스크까지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우석이는 직장을 잃게 되었고 수입이 끊기자 더욱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출금은 계속 늘어만 가고 눈과 허리 치료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스도 끊겨 휴대용 버너에 끓인 라면이 우석이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우석이는 이제 악화되는 시력과 점점 더 심해지는 허리통증으로 혼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8,000만원이라는 큰 빚이 생겨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이를 갚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석이는 지금 사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다시 일어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아직 어린 나이에 홀로 힘든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자립준비청년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직 나 혼자뿐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 나눔기획팀 이예림

혼자라고 생각해서 더욱 힘들었을 이들,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자립준비청년의 내일을 응원해주세요. 함께해주신 분들께는 자립준비청년의 글과 스토리가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선인장 텀블러'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석이에게 기댈 어른 되어주기

“홀트아동복지회 홀씨 1기, 생생하고 알찬 활동 기대해요”

홀트아동복지회 SNS 서포터즈 홀씨 1기의 첫걸음 발대식 현장과 향후 활동 소개

지난 8월 24일, 홀트아동복지회의 SNS 서포터즈 홀씨 1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의 활동과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SNS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와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홀트아동복지회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SNS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총 19명을 선발해 생생하고 알찬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발대식 현장에서의 첫 만남

이번 발대식에서는 ‘홀씨 1기’로 선정된 서포터즈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알아가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가치와 목표를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해 SNS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주요 활동과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에 이어 팀별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발대식에 참석한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환영사에서 “SNS 서포터즈 홀씨 1기 여러분의 활동으로 홀트아동복지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양한 사업이 널리 알려지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할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 환영사를 하고 있는 신미숙 회장님

2부 순서로 진행된 ‘비영리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통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트렌드 분석, 전략 수립 등에 대해 실질적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배포로 활발한 홍보활동

4개 팀의 활동으로 꾸려지는 이번 홀씨 1기는 8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4개월간 월별 미션 주제에 맞춰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홀씨 공식 계정과 개인의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월별로 제작된 콘텐츠를 배포하며 활발히 홍보활동을 펼친 서포터즈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 서포터즈 팀 활동 모습

서포터즈의 미래를 향한 기대

홀씨 1기는 홀트아동복지회의 다양한 활동을 널리 알리고, 후원자들과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성과 창의성이 담긴 콘텐츠 제작과 확산이라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전달된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기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팀별 회의에서 토론 중인 서포터즈 팀원들

▲ 팀 활동 계획 발표 장면

홀트아동복지회는 SNS 서포터즈 홀씨 1기 구성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포터즈의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홍보팀 김은영, 남지인

SK하이닉스 임직원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북커버 만들기

디어패밀리박스 3 북커버 만들기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으로 위기가정아동 지원

디어패밀리박스 3 북커버 만들기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은 참여자들이 참여기금을 후원하고 북커버를 제작하여 이를 위기가정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단순한 기부 차원을 넘어 직접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3분기에 진행된 디어패밀리박스 3 북커버 만들기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사회가치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반도체 전문기업 SK하이닉스 임직원들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임직원의 가족들까지 동참하여 위기가정아동을 돕기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 북커버 키트 구성 물품

책을 보호하는 북커버처럼 위기가정아동을 보호하는 나눔 실천

이번 북커버 만들기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사내 인트라넷를 통해 신청한 후 각 가정으로 북커버 제작 키트를 전달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이 키트에는 참여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북커버 제작을 위한 모든 재료와 제작 가이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처음에 바느질이 익숙지 않아 힘들어했지만, 점차 북커버를 완성해가면서 책을 보호하는 북커버처럼 위기가정아동을 보호하는 나눔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하는 기회

북커버의 소재는 환경을 고려해 버려지는 자투리 가죽을 재생·활용했으며 가죽 제작과정에서도 물을 절약하는 건식제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친환경의 가치를 담은 소재로 완성된 북커버는 위기가정아동들에게 전달되어 실용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북커버와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 카드도 아동들에게 전달되었는데요. 힘든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이번 북커버 만들기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의 경험을 통해 뿌듯함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참여기금으로 아동들의 생계·의료·주거·심리정서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손수 만든 결과물을 위기가정아동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북커버와 함께 담긴 응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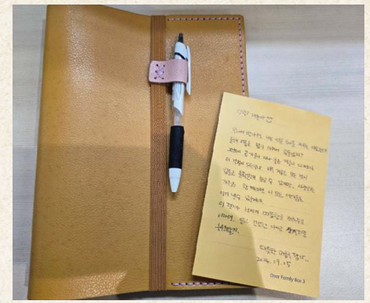
"너에게 북커버를 선물할 수 있어서 기뻐!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가득 채워지는 삶이길 기도할게."

"북커버를 만들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용하게 될 아이가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길 희망합니다."

"안녕? 나는 책을 정말 좋아해. 그래서 책장을 넘길 때도 조심조심 넘기며 소중하게 다루지. 내가 만든 이 북커버도 너의 소중한 책을 다치지 않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살아가면서 힘들 때 한 권의 책이 너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항상 책과 함께 하길 바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버티게 해줄 인생의 책을 만나길 바랄게."

"나는 실수가 많은 어른이란다. 비밀을 하나 알려주자면, 사실 다른 어른들도 완벽하진 않단다. 너에게 전하는 이 북커버들을 잘 보렴. 비슷해 보이지만 제각기 다른, 누군가는 실 길이를 잘못 재서, 누군가는 바느질을 잘 못해서 다 다른 모양이지. 하지만 그래서 재밌는 거란다. 한 명 한 명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란다."

▲ 완성된 북커버



▲ 응원 메시지

캠페인 참여신청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의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위기가정아동을 돕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모인 작은 정성은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글 나눔기획팀 황태우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멋진 '키다리 아저씨'

부동산공법 1타 강사 오시훈 후원자와의 만남

부동산공법 1타 강사로 탁월한 강의와 예비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진심 어린 응원을 아끼지 않는 오시훈 교수님. 지난해 연말 이루어진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에서부터 올 여름 개최된 '파랑새 7기 자립캠프' 참여에 이르기까지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아름다운 꿈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멋진 '키다리 아저씨'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오시훈 교수님의 일터 에듀윌을 찾아 후원자님이 생각하는 나눔의 가치와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시설청소년의 기댈 어른이 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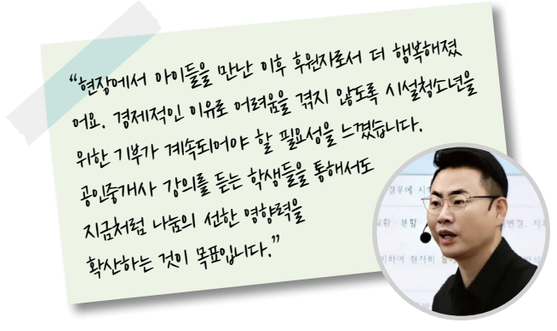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오시훈 후원자님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특강과 서적판매 수익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후원금 2,000만원을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써달라며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해주었습니다. 특강에 참여한 예비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여러분의 공부가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의 빛나는 꿈을 응원하는 기댈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나눔활동의 참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공인중개사가 되면 오시훈 교수님처럼 수익을 후원하겠다"며 나눔 실천의지를 보이는 수험생들이 있어 더욱 힘내서 강의에 임하게 된다는 오시훈 후원자님은 "제 생각에 나눔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 하나를 통해 세상이 바뀔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행함으로 나눔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기부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 주택임대계약의 꿀팁을 알려주신 신대운 교수님

▲ 자립준비청년 대상의 정책을 한눈에 요약해주신 이영방 교수님

나누는 사람 곁에 있는 더 큰 사랑의 전달자

오시훈 후원자님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대표 강사인 이영방 교수, 신대운 교수와 함께 지난 7월,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파랑새 7기 자립캠프'에도 참여해 시설청소년들이 사회에서의 홀로서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알찬 강의를 펼쳐주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세 분의 교수님들은 자립 후 꼭 알아두어야 할 주택 선택 체크리스트 등 부동산 지식과 공공·민간 단체의 자립준비청년 대상 정책 및 서비스, 주택임대계약 시 유의해야 할 법지식 등을 세심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생활 꿀팁 강의에 이어 신대운 교수님의 부인 박유진님의 피부관리와 메이크업 강연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날 교수님들과 부부동반으로 참여한 세 아내 분들은 엄마의 마음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한편, 후원으로 이루어진 바비큐 파티에서 아이들이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고기 굽는 활동에도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오시훈 후원자님은 첫 후원 이후 "홀트의 진정성 있는 사업내용을 들으니 기금이 더 필요할 것 같아 1,000만원 더 기부했습니다. 알아서 잘 써주세요!"라며 추가 후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덕분에 '파랑새 7기 자립캠프' 외에도 '도움을 받던 아이가 도움을 주는 어른이 되다'라는 주제로 실시된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해외봉사활동 '드림하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이들이 사랑과 응원을 받은 만큼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해요"라는 오시훈 후원자님 뜻에 딱 맞는 후원이 되었습니다.

▲ 바비큐 파티 봉사활동 모습

'오시훈 장학재단'이라는 비전

중학교 2학년 기술수업 시간에 제도 실력을 칭찬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건축학과라는 구체적인 진로를 일찌감치 결정할 수 있었고, 대학생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르치는 재능과 재미를 느껴 학원 강사가 되었다는 오시훈 후원자님은 "제가 꿈을 이룬 것처럼 시설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함께하는 '오시훈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타 강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쉽진 않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며 후원도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귀띔합니다.
강의만큼이나 열정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카리스마의 주인공, 오시훈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나눔지원팀장 권혜란
홍보팀 정진숙

극한의 무한도전!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장정 완주 후원

마라톤 도전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한 '찐파워' 도전 크리에이터 김진영 후원자

유튜브 채널 '찐파워(zzinpower)'를 운영 중인 도전 크리에이터 김진영 후원자는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 도전하여 1km당 1만원을 후원하는 '찐! 사하라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청년들의 도전과 꿈을 함께 응원해주실 분을 찾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김진영 후원자는 마라톤과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는 취지에 공감한 펀딩모금 참여자 80여 명과 함께 마라톤 완주의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인생 최대 버킷리스트를 이루다

전 세계 4대 극지 중 가장 큰 사하라 사막을 7일간 달리는 '사하라 사막 마라톤대회(Marathon Des Sables)'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마라톤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회는 김진영 후원자가 8년간 간직했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김진영 후원자는 열심히 준비한 끝에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참가자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참여해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10kg이 넘는 배낭을 메고 하루 평균 35km씩 달리는 코스와 무박 2일간 85km를 달리는 코스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따가운 태양의 열기와 강한 모래바람을 뚫고 252km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두려움을 폭파시키는 동기부여 천재

김진영 후원자는 이번 마라톤을 통해 소중한 5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 **도전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 **일단 부딪히다 보면 길이 생긴다.**
- **본인의 한계는 본인 자신이 만든다.**
- **'함께'하면 행복도 배가 된다.**
- **도전에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모금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과 열정이 가득했는데, 막상 펀딩을 시작하니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과정의 기쁨을 느끼고, '모이는 만큼 기부하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전이란, '나를 발견하는 놀이'다. 도전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할 뿐!"

'찐! 사하라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진영 후원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펀딩 후원자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여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서의 에피소드와 펀딩 참여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서 받은 기념 티셔츠는 방명록으로 변신해 완주 기념 토크쇼를 찾아준 후원자들의 이름과 완주 축하 메시지가 빼곡히 새겨진 특별한 티셔츠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펀딩 후원자들에게 사하라 사막의 멋진 사진을 담은 엽서와 김진영 후원자가 직접 작성한 감사 손편지를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며, '찐! 사하라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도전과 꿈을 응원해주신 '찐파워' 김진영 후원자와 '찐! 사하라 사막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펀딩 후원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나눔지원팀 구민지

스타를 향한 사랑이 나눔의 큰 기쁨으로

‘영웅시대 나눔의 방’의 특별한 팬덤기부

가수 임영웅 데뷔 8주년 기념 후원과 봉사

팬덤기부의 선한 영향력에 앞장서온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나눔의 방’ 회원들은 임영웅의 데뷔 8주년을 기념하여 데뷔일에 맞춘 808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홀트일산요양원’을 찾아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후원금 전달식과 이용인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선물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 전달식과 맛있는 나눔이 펼쳐진 봉사 현장으로 가볼까요?

▲ 장애인 후원 기금 전달식 및 후원금 결과보고 장면

‘온기’ 가득한 나눔으로 더욱 빛나는 영웅시대

영웅시대 나눔의 방은 2020년부터 임영웅의 생일, 데뷔, 앨범발매 등의 기념일에 총 2,640만원의 후원금을 전하고,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물품을 후원하는 등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3년 6월에는 홀트아동복지회 팬클럽 탑리더스 1호로 위촉되어 팬심을 통한 봉사와 기부로 가수 임영웅의 이름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나눔의 방 10명의 회원들은 이번 전달식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홀트일산요양원을 찾아주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효순 탑리더스 위원은 “최근 발매된 임영웅님의 신곡 ‘온기’의 가사처럼 영웅시대 나눔의 방이 따뜻한 온기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용인들을 위한 특별한 저녁식사, ‘HERO 김밥’과 ‘건행! 수박주스’

후원금 전달식에 이어 나눔의 방 회원들은 홀트일산요양원 이용자 100여 명을 위해 특별한 저녁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김밥 준비까지 주방에서의 분주한 손길 덕분에 정성이 가득 담긴 130줄의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치즈듬뿍 ‘HERO 김밥’과 시원한 ‘건행(임영웅의 시그니처 인사 ‘건강하고 행복하세요’의 줄임말) 수박주스’는 홀트일산요양원의 저녁 특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날, 나눔의 방 회원들은 홀트일산요양원 이용인 중에서 임영웅의 팬을 우연히 만나는 반가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 나눔의 방 회원은 “홀트일산요양원에서 임영웅님의 팬을 만나다니 정말 놀랍고 뜻깊었어요. 여기서 팬을 만날 걸 미리 알았으면 임영웅님의 굿즈 등 더 많은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저희가 만든 김밥을 맛있게 드셔주셔서 행복하고 보람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 홀트일산요양원 장애인들과 즐거운 한때

▲ 김밥 준비로 분주한 ‘영웅시대 나눔의 방’ 회원들

나눔의 기쁨을 느끼려면 ‘영웅시대 나눔의 방’처럼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나눔의 방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이용자분들에게 큰 기쁨을 드렸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멋진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김밥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이용자분들의 환한 미소가 오늘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해주었어요."

가수 임영웅님의 데뷔 8주년을 축하드리며 홀트일산요양원 이용자 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신 영웅시대 나눔의 방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팬심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 팬클럽 기부의 모범이자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홀트아동복지회가 응원하겠습니다.

글 나눔지원팀 권소현

HOLT NEWS

본부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 탑리더스에 위촉

6월 24일, 41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한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의 탑리더스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탑리더스는 기부와 봉사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고액후원자 모임으로, 이번 위촉식에서 전달받은 후원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미숙 회장은 "탑리더스를 기획한 멤버로서 감개무량하다"며 "홀트를 위해 직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새음학교, 2024 지리산 나눔 종주 위기가정아동 지원

7월 4일, 새음학교 '막무가내 대장부 18기' 학생들과 지리산 나눔 종주를 통한 위기가정아동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리산 나눔 종주는 매년 새음학교 7학년 학생들이 걷는 거리만큼 후원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아동을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나눔 종주는 '한계를 기회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지리산 종주 도전으로 모인 기금은 위기가정아동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홀트 전국후원회,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드림하이' 후원

7월 23일,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드림하이'를 위한 홀트 전국후원회의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회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된 2,420만원의 기금은 지난 8월 4~9일, 5박 6일간 몽골 홀트드림센터에서 전개된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에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던 아이에서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들의 빛나는 꿈을 응원해준 전국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업무협약

8월 1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과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다양한 협력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련해 사회·경제적으로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민간복지 자원 연계를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됩니다.

본부

김찬규 탑리더스 위원, 홀트 임직원과의 만남

8월 26일, 김찬규 탑리더스 위원이 홀트아동복지회를 방문해 홀트 임직원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42년 동안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찬규 위원은 사회초년생 시절 첫 후원을 통해 홀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김찬규 후원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자신의 후원 소감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무더위 속 빛난 나눔, 홀트패밀리샵 신규 가입 소식

2024년 3분기, 위기가정아동을 돕기 위한 중소상공인 정기후원 캠페인 '홀트패밀리샵'에 많은 사장님들께서 새롭게 동참해주셨습니다. 만화카페, 소품샵, 아이스크림 가게,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나눔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매달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장님들의 후원은 도움이 절실한 아동들에게 큰 희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꾸준한 사랑을 나눠주시는 사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산지부

아이젠트리㈜,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 위해 기부금 전달

7월 19일, 아이젠트리(주) 본사(대표 마용덕)와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아이젠트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금 전달과 무료 안경 지원으로 9년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아이젠트리 가맹점에서 동시에 실시한 고객감사 행사의 수익금 중 일부로, 아이젠트리 가맹점 및 행사 기간 중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이름으로 기부되었습니다.

대구지부

경일여자중학교, 위기임산부 위한 후원물품 전달

9월 4일, 경일여자중학교와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의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대구지부를 통해 미혼모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하여 홀로 아기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신생아 손싸개를 직접 만들며 위기임산부 및 영아를 돕는 일에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신생아 손싸개와 응원 메시지는 280일 상자(양육물품)와 함께 위기임산부와 미혼모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HOLT NEWS

충청지부

충남 1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8월 7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 16개 도·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기가정아동 및 고위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가정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및 고위험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과 상담 연계를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됩니다.

홀트일산요양원

배우 정해인 팬모임, 장애인 위해 쌀 100kg 후원

8월 22일, 배우 정해인의 팬모임 '에버♥정해인', 'Club Fans LatinAmerica'에서 홀트일산요양원 장애인들을 위해 쌀 100kg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8월 14일, 배우 정해인의 tvN 드라마 〈엄마친구아들〉의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축하 화환으로 사용된 쌀(드리米) 100kg이 전달된 것으로, 팬모임은 "배우 정해인님의 선행에 동참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며 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랑을 나누어주신 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4 추석맞이 행복 나눔잔치

9월 10일, 고양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와 (주)태건비에프가 후원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추석맞이 행복 나눔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국악전통 연주팀인 아리아난타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후원금 전달식과 아르떼아카데미 국악예술단 및 레드헌터의 멋진 축하공연, 그리고 장애인 노래자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경품 추첨과 기념품 제공을 통해 참석자들은 서로 따뜻한 정을 느끼며 행복한 추석 나눔잔치를 마무리했습니다.

홀트학교

예그리나&국악 오케스트라 '2024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전' 참가

8월 24일, 홀트학교 예그리나&국악 오케스트라가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린 '2024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전'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음악협회 경기도 지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 홀트학교 예그리나&국악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악기와 국악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편성으로 천상의 화음을 연주하여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아침뜰

금호석유화학, 한부모가족 위해 승합차 후원

9월 2일,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 중앙연구소와 차량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침뜰 개원 초기인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일에 함께해왔는데요, 아침뜰에 차량이 필요함을 깊이 공감하고 엄마와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승합차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이번 기증식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뜰

신나는 롯데월드 나들이

8월 29일, 아름뜰 가족들이 롯데월드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고 육아에 전념하는 미혼 엄마들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롯데월드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를 통해 자유이용권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롯데월드에 도착한 엄마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놀이기구를 타며 스릴을 즐기고, 사진도 찍으며 오랜만에 여유롭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구클로버

영양과 정성이 가득한 '우리 아이 반찬 만들기' 실시

8월 14~28일 매주 수요일, 대구클로버 4층 교육실에서 '우리 아이 반찬 만들기' 요리 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국과 반찬을 만든 이번 요리 프로그램은 엄마들의 서툰 칼질과 요리 실력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의 열기를 이겨낼 만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과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자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엄마들의 노력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대전클로버

엄마와 아기의 성장을 축하하는 백일잔치 개최

8월 19일, 엄마와 아기의 성장을 축하하는 백일잔치가 열렸습니다. 백일 동안 건강하게 자란 아이와 홀로 아이를 키운 엄마를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백일잔치는 지역 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원봉사 모임 '담다(대표 임은영)'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자 모임 '담다'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맛있는 백일 음식와 백일상을 준비해주었습니다.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집니다

국내후원
위기가정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한부모가정과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해외후원
해외 빈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4개국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결연후원
향기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국내 · 외 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기회를 지원합니다.

고액후원
다양한 기부활동과 봉사로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가 되어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합니다.

기업후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협력사업(수익기부, 지원사업 공동기획, 임직원 · 고객 참여 캠페인, 공익연계 마케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합니다.

교회후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회가 이웃과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갑니다.

특별한 후원
생일, 첫돌, 결혼, 취업, 출산, 팬덤 등 특별하고 소중한 날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념일 캠페인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후원합니다.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아기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 **280일.**

누군가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버텨내는 시간.

가난과 편견으로 위험에 노출된 **엄마와 아기를 지켜주세요.**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홀트아동복지회 후원문의 02-331-7073~6 2,800원 소액기부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풍요롭게

Re. Green 으로
더 깨끗하고 푸른 지구를

탄소중립의 숲
5만평 규모의 국유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탄소중립의 숲 조성 사업

리그린 파크
도심 속 방치되어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유휴공간을 녹색공간으로 복원

독립 자원순환 친환경 쇼핑백 제작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지를 자체 수집해
100% 재생지로 만든 쇼핑백 제작

폐기비닐 자원 순환 프로세스 구축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재활용

We. Dream 으로
미래세대가 마음 놓고 꿈꾸는 세상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겪는 가족을
직접 돌보는 청소년들을 지원

지역 아동센터 대학생 학습 멘토링 지원
대학생 멘토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1:1로 연결해 학습과 정서적 지원 제공

발달 장애인 특화 사업장 지원
발달 장애인 특화 사업장 건립 지원 및
생산품 판로 지원

순직제복공무원 유가족 학자금 지원
순직 경찰관·소방관·군인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현대백화점그룹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눔기업입니다.